



[산업] LG전자 통합배송로봇 첫 선 지형따라 최적 주행 06



Life

[라이프] GS리테일 전문무역상사 획득 독일에 K-맥주 수출 L2



# 담소 나누고... 채집하며 뛰놀고... 배수지 위, 녹음 짙은 '금호동 사랑방'

12일 오후 대현산배수지공원에서 어린이들이 나비를 잡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김현정 기자

## 되살아나는 서울

### 대현산배수지공원

서울 성동구 금호동1가에는 배수지 위에 만들어진 공원이 있다. '대현산배수지공원'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배수지'는 배수구역의 수요량에 맞춰 적절하게 급수하기 위해 정수된 깨끗한 물을 일시적으로 모아두는 저류지를 의미한다. 급수량을 조절하면서 안정적으로 물을 공급하는 상수도 시설 중 하나로, 정수장과 가정용 수도꼭지 사이에 있는 '수돗물 저장탱크'라고 생각하면 쉽다. 정전이나 공사로 인한 단수 사태를 막는 기능을 한다. 수돗물을 여러 지역에 안정적으로 나눠 보내기 위해 언덕과 같은 높은 지대에 설치한다.



동네 주민들이 대현산배수지 공원에서 여유를 즐기고 있다.



시민들이 대현산배수지 공원에 설치된 배수지 환기구 옆을 지나가고 있다.

### ◆배수지 위에 공원 만든 이유는?

지난 12일 개원 19년차를 맞은 대현산배수지공원을 방문했다. 공원은 5호선 신금호역에서 내려 3번 출구로 나와 약 200m(3분)를 걸으면 나온다. 초록색 우레탄길과 회색 콘크리트길 두 갈래로 길이 났는데 한 방향 걷기를 유도하기 위해 모두 우측통행을 하도록 바닥에 화살표로 표시해놨다. 폭염주의보가 발령된 터라 햇볕이 따가웠는데도 이날 오후 대현산배수지 공원은 콧바람을 쐬기 위해 밖으로 나온 시민들로 북적였다.

동네주민 이모(70)씨는 "집 근처에 이렇게 큰 공원이 있는 게 참 복이다. 내 친구는 가까운데 공원도 없고 해서 노인정 다니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가게 돼 요새 영 기운 없어 한다"면서 "아니, 공원 둘 땅이 없으면 이렇게 배수지 위 같은데 지어놓으면 될 것 아니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시는 어쩌다 배수지 위에 공원을 만들게 된 걸까? 이는 종합토지세(전국의 토지를 소유자별로 합산해 누진과세하는 지방세) 시행으로 세금을 감당못해 문을 닫는 체육시설이 늘자 서울시가 생활체육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짜낸 묘안이다.

1990년대 초 서울시는 생활체육시설을 늘리기 위해 상수도 배수지 상부에 운동기구를 갖춘 시민체육공원을 만들기로 결정했다. 이전까지 시는 식수원의 오염을 우려해 배수지 지상을 일반에 개방하지 않았다. 그러나 1990년 5월 우장산 배수지 위를 공원으로 가꾸는 시범 사업을 벌인 결과,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 모든 배수지 상부에 시민들을 위한 녹지 공간을 조성하기로 한 것이다.

### 1990년대 초, 생활체육시설 확충 나서 상수도 배수지 상부에 시민공원 조성 아기부터 노인까지 아우르는 휴식처로

대현산배수지공원 건립이 가시화 된 것은 이로부터 7년 뒤의 일이다. 서울시는 1997년 8월 관내에 대형 배수지 4곳(▲성동구 금호동1가 대현산배수지 ▲동작구 본동 노랑진저구배수지 ▲서초구 반포동 서리풀근린공원 내 반포배수지 ▲서초구 방배동 우면산 자연공원 내 방배저수지)을 새롭게 지어 54만가구에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배수지 상부엔 공원을 만들어 시민들을 위한 휴식처를 제공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당시 시는 1908년 지어진 탓에 저수용량이 5만8500t에 불과했던 대현산배수지를 헐고 20만t 규모로 새로 만들기로 했다.

시는 1998년 5월 착공에 들어가 2002년 10월 마포·성동·성북·용산·종로·중구 6개구 27만2000가구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대현산배수지를 완공하고, 이듬해 5월 공원을 개원했다.

### ◆동네 사랑방 역할 톡톡히 하는 공원

지난 12일 오후 공원은 거리두기 4단계 적용 첫날이라는 사실이 무색할 정도로 사람이 많았다. 부모 품에 안긴 갓난아기부터 머리가 하얗게 센 노인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시민들을 만나볼 수 있었다. 아름드리 느티나무 아래 벤치에 앉아 담소를 나누는 노인들이 눈에 띄었다. 슬쩍 옆에 다가가 무슨 이야기를 나누는지 들어봤다.

꽃무늬 모자를 푹 눌러쓴 할머니는 "나는

나오면서 어제 삼계탕 못해먹은 거 해먹고 나왔잖아"라고 운을 뗐다. 그 옆에 있던 선글라스 낀 노인이 "뭐 넣어 먹는데?"라고 묻자 "닭 한마리 넣어서 마늘 많이 넣고, 생강 넣고, 삼 넣고. 너무 많이 넣으면 맛있어"라고 답했다.

그러자 손부채질을 하며 이들의 얘기를 잠자코 듣고 있던 다른 할머니가 "아니야, 뭘 좀 넣어야 삼계탕이 맛있어져"라면서 "T.V에 나온대로 녹두, 찹쌀, 밤, 대추랑 양파 한쪽, 대파를 반 푼 잘라 넣었다니 담백하니 맛있었다"고 반박했다.

이들은 서로 자신의 삼계탕 조리법이 최고라며 아웅다웅 다뤘는데 그 모습이 찍히려워 보였다.

공원 중앙 잔디광장에서는 어린이들이 나비를 잡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었다. 꼬마들의 얼굴은 햇볕에 시꺼맷게 탔고, 이마에는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다. 이들의 손엔 형광색 잡자리채와 플라스틱 곤충 채집함이 들려 있었다.

아이들은 "여기 나비있다", "호랑나비는 내가 잡을 거야", "우와 잡자리다"를 외치며 공원 여기저기를 들쭉시고 다녔다.

30분째 별다른 소득이 없자 아이들은 벤치에 앉아 있는 주민들에게 다가와서는 '잡자리 잡아 주세요', '노란 나비 잡아주세요'라며 어려운 부탁을 거리낌없이 해댔다. 어른들은 난처해하다가도 아이들의 성화에 못이겨 잡자리채를 들고 곤충 채집에 나섰다.

그늘에서 자녀들의 모습을 한참동안 지켜보던 한 학부모는 "그래, 아이들은 이렇게 밖에서 뛰어놀아야지"라는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 바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BTS '버터', 빌보드 7주연속 1위 기록...신곡 'PTD'로 바통터치 /사진 뉴시스  
▲ 한류 소개 페르시아어판 잡지 최초 발간

▲ 구자철, 카타르 알 가라파와 결별...K리그 복귀 '고민'  
▲ 성남 이어 대구FC도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 '승부 조작' 혐의 윤성환 전 삼성 투수, 첫 재판서 "공소사실 인정" /사진 뉴시스  
▲ 엇경찰, 축구선수 인종차별 수사 개시...윌리엄 왕세손도 맹비난